

1 애완동물 산업의 현황과 현안 문제

홍보팀

최근 모 은행에서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고객을 위한 예금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관계자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라 고객의 성향에 맞춰 금융거래 또한 애완동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다. 이같은 예금상품의 개발은 현재 1조원 이상에 육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장이 예상되고 있는 애완동물시장의 시장력과 그 중요성을 일반 금융권에서도 체감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추정되고 있는 애완동물의 수입 마리수 증가와 총 산업대비 차지하는 애완동물 산업의 매출액 비중 증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전문가에 따르면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산업현황까지 포함했을 때 국내 애완동물 산업은 지금 추정되고 있는 산업의 최소 2배에서 10배 이상의 규모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려동물 수요 급증에 따른 산업 확장

한국리서치가 지난 2002년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애견시장 규모는 2002년말 기준으로 약 1조3,000억원으로 매년 15~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애견분포는 현재 약 150만호로 애견인구는 약 500만명, 애완견 수는 300만 마리로 애견보급률을 6.9%로 추정했다.

이는 애견 선진국인 미국(애견인구: 1억6,000만명, 애견수: 6,000만 마리, 시장규모: 26조4,000억원, 애견보급률: 61%), 일본(애견인구: 4,200만명, 애견수: 1,000만 마리, 시장규모: 12조원, 애견보급률: 40%)과는 비교가 안되지만 최근 급성장하는 애견산업을 볼 때 단시일내에 비슷한 수준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는 애완동물 시장이 GNP 12,000달러부터 성장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진국보다 낮은 GNP 수준에서 산업성장이 시작됐다는 것은 향후 소득이 증대될 경우, 높은 성장률로 선진국의 애견산업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



을 암시한다고 예측했다.

실제로 1999년 국내 애완견시장규모는 5,000억원으로 가구수도 100만 가구에 그쳤으나 현재는 240% 성장을 했으며, 애완견 수입규모도 2001년 936마리에서 2002년 12,656마리로 1년 사이에 1,351% 증가해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애견협회 관계자는 국내 애완동물 산업은 향후 10~15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05년까지는 애견 분양위주의 수요 주도에서 2008년까지는 용품 판매위주의 수요가 주도하고, 2012년까지는 애견미용 및 호텔 등의 서비스 수요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2013년 이후부터 틈새사업 아이템인 애견카페, 포토샵 등 다양한 서비스 수요로 애견산업이 변모해 10여년 후에는 5~6조원 규모의 대형 산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국내 애완동물 및 애완동물 용품 수입현황

최근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주요 애완동물 수입은 올해 8월까지 전체 수입액 1,142억5,900만불의 0.008%인 900만불 정도이며, 애완견을 비롯해 고양이, 맹금류, 앵무새, 이구아나, 열대어, 도마뱀 등 그 종의 다양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수입 애완동물 중에서는 애완견의 비중이 가장 커 금액면으로는 올해 525만8,000불로 약 2만6,900마리에 달하며, 전체 애완동물 수입금액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개, 거북이, 이구아나 등의 수입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도마뱀, 기니아피그, 페릿 등 이색동물의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5,866%, 102%, 60%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표 1〉).

국가별로 살펴보면 애완동물 중 애완견 및 고양이의 경우, 주로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지역에서, 도마뱀 및 이구아나 등은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미국남부 등 열대 지역에서 수입해오고 있다(〈표 2〉).

애완동물은 열대동물 및 조류 등은 인천국제공항세관을 통해, 개, 고양이, 기니아피그 등은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애완동물의 수입은 공항만에서 수입신고를 한 뒤 검역과 세금납부의 과정을 거쳐야 통관이 허용되고 있다.

<표 1> '00~'03년 8월 주요 애완동물 수입 현황

(단위: 수, 천불)

구분	종류	'00년	'01년	'02년	'03년 8월	'00년 대비 증감률	'01년 대비 증감률	'02년 대비 증감률	'03년 8월 대비 증감률
개	마리	15,526	15,395	-1.3	51,159	233	26,900	-14.8	
	금액	223	18,194	730	8,477	355	5,258	8.4	
거북 (청거북)	마리	838,388	1,364,647	62.7	431,467	-68.4	219,274	-29.9	
	금액	827	1,422	72	1,782	25.3	1,229	2.0	
고양이	마리	68	1,311	1,827	4,583	250	3,718	24	
	금액	2	88	3,632	381	331	313	28	
이구아나	마리	17,208	19,756	62.7	29,910	-68.4	25,490	-29.9	
	금액	62	74	72.0	127	25.3	82	2.0	
기니피그	마리	125	2,117	1,593	2,268	7.1	3,943	102	
	금액	2,111	48	2,218	16	-65.6	40	244	
패릿 (족제비)	마리	368	7,298	1,883	824	-88.7	530	61	
	금액	26	29	9.7	61	108	38	55	
조류	마리	21,829	4,685	-78.5	1,874	-60.0	5,353	198.9	
	금액	554	198	-64.3	14	-92.9	23	92.1	
도마뱀	마리	-	-	-	37	-	5,260	5,866	
	금액	-	-	-	1	-	14	15873	
열대어	금액	1,951	1,743	-10.6	2,110	21.0	1,552	10.7	

* '03.1~8월 실적은 전년동기대비임.

* 자료: 주요 애완동물 및 애완동물용품 수입동향 분석, 2003. 9. 관세청.

<표 2> '03년 1월~8월 애완동물 종류별 수입국가 현황

(단위: 천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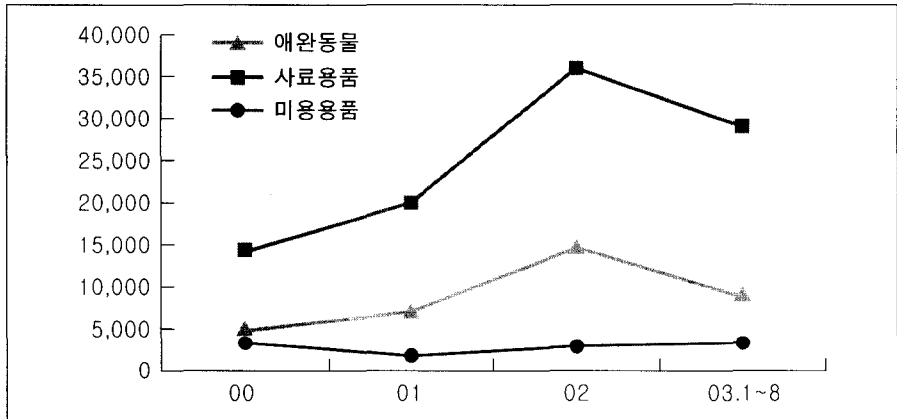
구분	수입액	수입국가
개	5,258	중국(66.5), 미국(11.3), 우즈베크(7.7), 러시아(3.9)
열대어	1,553	싱가포르(25.7), 인도네시아(15.9), 태국(14.1), 타이완(10.0)
거북	1,229	태국(63.1), 인도네시아(20.0), 미국(8.4), 말레이시아(7.2)
고양이	313	우즈베크(56.9), 중국(32.2), 러시아(4.4)
이구아나	82	엘살바도르(85.3), 미국(14.7)
기니피그	41	중국(30.1), 일본(29.8), 자이레(29.2), 미국(9.6)
패릿	38	미국(100)
조류	23	인도네시아(39.8), 인디아(34.5), 벨기에(25.0)
도마뱀	14	미국(71.4), 인도네시아(14.2), 이집트(5.0)

* 자료: 주요 애완동물 및 애완동물용품 수입동향 분석, 2003. 9. 관세청.

애완동물의 수입증가와 함께 애완동물의 사료용품과 애완동물용 미용용품의 수입도 증가일로에 있으며, 애완동물용품의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0.03%인 3,500만불로 애완동물 수입의 3.9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림 1〉).

<그림 1> 00~03년 8월 애완동물 및 애완동물용품 수입 추이

(단위: 천불)



* 자료: 주요 애완동물 및 애완동물용품 수입동향 분석, 2003. 9. 관세청.

애완동물용품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대거 수입되고 있으며, 사료용품은 전년동기 금액대비로 증감율이 2002년 80%, 2003년 52%로 증가폭이 다소 크며, 애완동물 미용(위생)용품 또한 2002년 41%, 2003년 66%로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표 3〉).

국가별로 살펴봤을 때 애완동물용품 수입 비중은 금액대비로 미국이 53.8%(1,567만6,000불)로 가장 많은 수입을 하고 있으며 호주가 19.5%(567만2,000불), 일본 6.7%(195만3,000불), 중국 6.3%(183만5,000불) 순이다.

<표 3> 00~03년 8월 애완동물용품 수입현황

(단위: 수, 천불)

품목	00		01		02		03.1~8월	
	수	증감률	수	증감률	수	증감률	수	증감률
사료용품	14,103	17.4	19,749	40.0	35,559	80.1	32,377	51.9
미용용품	3,199	181.4	1,972	-38.3	2,798	41.8	3,312	66.4

* 사료용품: 소매용으로 포장된 개 또는 고양이 등 애완동물 먹이

미용용품: 샴푸, 치약, 칫솔, 구강탈취제, 냄새제거제, 눈세정제, 귀속살충제 등

* 자료: 주요 애완동물 및 애완동물용품 수입동향 분석, 2003. 9. 관세청.

'Global Industry Analysts'가 보고한 "애완동물 사료 산업-2003년 세계 시장 데이터 총람"에 따르면 사료용품은 세계적으로도 증가일로에 있다(〈표 4〉).

<표 4> 국가별, 연도별 사료용품 판매액 및 추정액

(단위: US\$ 10억)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북미	11.41	11.66	11.92	12.21	12.52
서유럽	9.19	9.37	9.57	9.78	10.01
아시아	3.03	3.09	3.15	3.21	3.28
라틴아메리카	1.62	1.64	1.67	1.70	1.73
호주	1.41	1.44	1.47	1.51	1.55
동유럽	0.81	0.82	0.84	0.86	0.88
중아시아	0.31	0.32	0.33	0.34	0.35
Total	27.78	28.34	28.95	29.61	30.32

* 자료: 'A GLOBAL MARKET DATA COMPENDIUM 2003', 2003, Goba Industry Analysts, Inc.

성장의 이면에 자리잡은 문제점들

애완동물은 반려동물로서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반면에 제반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다. 특히 급속한 양적 성장에 따른 문화적인 뒷받침이나 행정적, 정책적인 지원이 희박한 실정이라서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은 검역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다.

현재 수입되는 애완동물은 광견병 발생과 예방접종 여부만이 검역의 대상이 되고 있다. 3개월 이상의 애완동물은 광견병 발생국의 경우, 검역증명서 또는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구비해야 하며, 예방접종 후 30일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검토해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일수를 계류시키면서 검역하고,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한 후 30일 계류후 개방하게 된다.

3개월 미만의 애완동물은 검역증명서 또는 건강증명서를 구비하고 1일 이내의 검역 기간을 거치면 개방된다.

그러나 광견병 비발생국의 경우는 3개월령 이상의 애완동물은 검역증명서만 구비하



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내에 검역이 끝나며, 3개월 미만은 검역증명서 또는 건강증명서만을 구비하며 일질의 검역기간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애완동물이 옮길 수 있는 질병은 그 종류가 다양하며, 애완동물 외에도 다른 가축 내지 동물에 옮길 수 있는 질병을 국내에 유입할 수 있는 숙주로서 작용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국내 애완견의 경우, 종견을 선진원산지에서 지속적으로 도입하지 않아 애완견의 90%가 근친교배되고 있어 품질향상을 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택구조나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의 성격, 소비수준에 맞는 애견분양을 위한 준비없이 사업상의 이익만을 추구함에 따라 업계의 인지도 하락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애견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기 위한 제살각기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가짜 혈통서 남발과 병든 강아지 분양, 조기폐사가 우려되는 자견을 고객이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판매하는 등 상도에 어긋나는 분양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게다가 부적절한 유통구조로 전문적인 애완동물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병원에서 미용은 물론 애완동물 용품을 판매하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

무분별한 애완동물의 사육과 애완동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버려지는 애완동물의 급증도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청 농수산유통과 김현열 계장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에서 잡은 동물은 모두 3,279마리(개 2,227마리, 고양이 1,046마리, 기타 6마리)로 전년대비 62%나 증가했다. 올해는 9월말 현재로 5,100마리로 이미 지난해 총 마리수를 초과해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버려진 동물 중 주인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드문 상황이며 지난해만도 버려진 동물 중 66%에 달하는 2,190마리가 안락사 처리됐다.

애완동물의 관리소홀과 이해부족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로 걷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구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국애견협회에 따르면 특히 애견을 키우는 가구는 10가구중 1가구 풀이고, 분양 마리는 가구당 0.25~0.33두로 5년 이내에 1가구당 1마리꼴 이상으로 증가되고 주5일제 근무가 보편화될 경우 증가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무엇보다 급신장에 따라 파생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할 행정적·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며, 이와 더불어 올바른 애완동물 문화의 정착이 보다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⑤